

음식 20인분 예약해놓고 무소식... 울고싶은 자영업자

지난해 음식점 등 5대 서비스업 '노쇼'로 4조5천억원 손실 식당 20%·병원 18%·미용실 15%... 소비자 인식 개선 절실

최근 예약을 해놓고 취소나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로 인한 피해가 경제계 전반에 걸쳐 확산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업종에서 지난 한 해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4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종과 연관된 제조업체의 손실까지 합치면 경제적 피해는 8조2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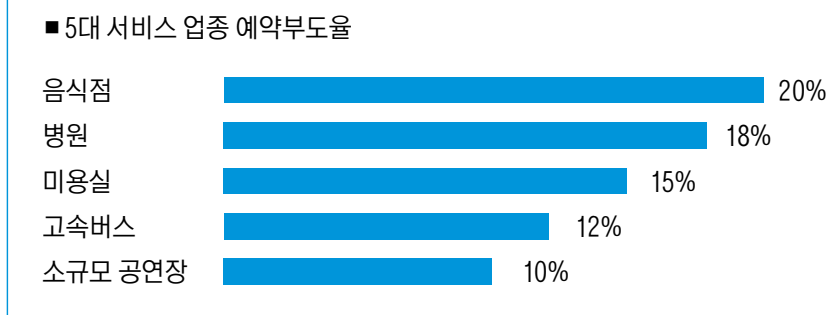
평균 예약 부도율은 식당이 20%, 개인병원 18%, 미용실은 15%에 달했다. 소규모 공연장

노쇼 (No show)
예약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손님. 예약 부도라고도 한다.

모 공연장은 10.1%, 고속버스는 12%였다. 특히 식당 예약 부도율은 2001년 한국소비자원 조사(10%)의 두 배가 됐다.

실제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A 음식점은 지난달 소비자 1인당 1만 8000원짜리 메뉴 20인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아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다.

영업주 구씨는 손님에게 항의 전화를 하자 해당 고객은 "일정이 바뀌면 손님이



못 갈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일일이 따지면 장사 망할 것"이라고 되레 호통을 쳤다며 분을 사하지 못했다. 구씨는 "실제 방문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예약하는 경우는 더 많다"며 "버리는 음식 값만 연간 1000만원 이상은 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광양에서 콘도(숙박시설) 영업을 하고

있는 박씨도 최근 예약 관계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주말 오후로했던 투숙객이 시간내에 도착하지 않아 연락했다니 일정이 맞지 않아 다른 곳에 숙박을 잡았다 는 것이다. 사정이 있어 그러려니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장사하는 사람을 배려했다면 며칠전이라도 취소를 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노쇼 근절 캠페인'에 나섰다. 이 캠페인은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예약부도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지난 2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김희현 부위원장이 기업인들과 만나 노쇼 근절 캠페인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장,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원기업 18개사의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기업 내 많은 구성원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지위도 동시에 지닌다"면서 "기업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울여 준다면 이번 캠페인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노쇼로 인한 손실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

다. 사업자가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손실 비용을 물품 가격에 전가하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면엔 노쇼로 제시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평균 15%인 음식점과 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업종의 예약 부도율을 전국 수준인 10%로 낮출 경우 경제적 손실을 매년 3조8310억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현재 상황으로는 노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한다.

지역 외식업체 한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예약 보증금 제도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 상반기 건축물 인허가 면적 208% 증가

전국 아파트 인허가 면적 역대 최고... 주택 공급과잉 우려

올해 상반기 건축물 인허가 면적이 광주가 작년 대비 200% 이상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9.2% 증가했다. 아파트 등 주거건물 인허가면적이 대폭 확대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에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13만4348동으로 총면적은 8756만7000㎡에 달했다. 이런 동과 면적 규모는 모두 역대 상반기 가운데 최대이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인허가 동(棟) 수는 6.4%, 면적은 9.2% 증가한 것이다.

상반기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면적은 3938만3000㎡(6만4168동)로 작년보다 18.9%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는 2737만

㎡(3492동)로 작년보다 27.5%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23만1000㎡(1429동)로 9.4%, 지방이 1513만9000㎡(2063동)로 47.2%나 늘었다. 지자체별로는 광주가 208.2% 증가했으며 울산(167.7%) 서울(8.16%)·경기(6.9%) 등에서 아파트 인허가면적이 많이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이 3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상반기 인허가면적이 늘면서 '주택공급과잉'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에 준공된 주거용 건축물 면적은 2458만7000㎡(4만2310동)로 작년과 비교해 24.1% 늘었다. 이들 건축물은 재작년께 인허가를 받은 물량이다.

다만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 면적 규모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2924만3000㎡(5만7613동)로 작년보다 4.9% 감소했다. 건설사들이 일단 인허가를 받아놓고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착공을 미룬 것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상반기 공업용 건축물 인허가면적은 835만8000㎡(1만122동)로 5.3% 늘어났다. 반면에 상업용과 의료시설·극장·전시장 등 문화사회용은 각각 2373만9000㎡(3만7358동)와 434만7000㎡(4713동)로 0.1%와 17.2% 감소했다.

건축물 인허가면적 등에 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www.eais.go.kr)이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기청, 영세자영업자 지원 햇살론 금리 4%로 낮춰

중소기업청이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 4%대 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1일부터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창업·운영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의 금리를 연 4.7~4.9%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총 10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 자영업자와 한부모가정,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에는 보증료도 감면한다.

중기청은 이번 햇살론 금리 인하로 서민들이 부담할 이자비용이 10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저축은행 등 햇살론 취급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9.61 (+13.42)	금리 (국고채 3년) 1.21% (0.00)
↓ 코스닥 703.72 (-2.52)	↓ 환율 (USD) 1108.00원 (-12.20)



한전 대학생봉사단 인도네시아서 전기 봉사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25일부터 8월 1일까지 7박 8일 동안 인도네시아 풍간간 지역에 KEPCO 대학생 해외봉사단 30명을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한전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차세대 전력산업에 이력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작년 120명의 동남아 봉사활동에 이어 2년째를 맞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인 플리켄 마을(Pliken sub-village)에서 봉사활동을 시행하였으며 이 마을은 대부분의 가구와 초등학교에 전기가 없어 촛불에 의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한전 대학생 봉사단원 30명은 마을의 50여 가구에 태양광 투광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와 투광등을 설치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 전기의 원리를 배우는 전기과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빛과 에너지를 테마로 한 한전만의 특색을 살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한전은 글로벌 1위 전력회사로서,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해외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한 광주은행장이 지난 28일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회 메세나 나눔 행사 어린이 뮤지컬 관람 전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문화 나눔... 어린이 뮤지컬 공연 성료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회 메세나 나눔 행사 '무적의 삼총사'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 속에 성료됐다.

광주은행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2년째로 펼친 이번 메세나 나눔 행사는, 높은 완성도와 재미로 대학로 극장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무적의 삼총사' 어린이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 3일 동안 약 2500여명이 넘는 지역민들이 무료로 공연을 관람했다. 특히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기관 어린이들을 초대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큰 선물이 됐으며 학부모들에게는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된 첫 주말에 무료로 아이들에게 명품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돼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은행 임숙경 사회공헌부 팀장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광주은행 메세나 나눔 문화공연을 지역민들과 어린이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공헌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도) 대진프리모 광복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폼이식카넷
Step 3. 외벽외장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터너디자인, 잔 멘디나의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외벽 단열방수, 방수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동료문화센터 옥상시공, 시공사례, 상명대학교/영광보건소/재민대학교/태백시보건소, 민성시립도서관/강화군청/인제대학교/부천소방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